

수기



한만석
(前 서울노랑진 서장)

나. 현재의 나
과거의 모든 영상이 지나가더니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현상들이 새로 나타난다.

지금 나는 나의 사회적 성장뿐만 아니라 아내의 꿈의 실현, 아이들이 굳건히 자랄 수 있는 기틀의 마련, 지금까지 잘 해 놓은 것 하나 없는 내게는 이것이야말로 “나의 과제”였다.

이렇게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이 내게 가지고 있는 신뢰에 희망을 안겨주어야 할 무게를 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초라한 모습 이대로는 내 인생을 중단하거나 끝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나다.

다. 미래에 있을 일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만 가지 현상이 지나가고 나니 미래에 처하게 될 여러 가지 형태의 영상이 머리 속에 그려졌다.

지금 만삭인 아내의 배 속에 있는 아기가 유복자(遺腹子)로 태어나 “아버지”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어렴풋이 찾아보면서 어린이로, 청소년으로, 사회인으로 커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시장 한 가운데서 무슨 장사인가를 하고 있을 생활에 찌든 아내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고, 화려한 환경 속에서 외젓하고 여유 있는 중년부인으로 보이기도 한다.

집안의 기둥이 해야 할 일을 그냥 놔두고 끝내버린 집 안에서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이 갖는 허전한 분위기가 어른대더니 곧 제각기 생활전선에서 외젓하게 견재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식구들을 볼 수가 있었다.

기어이 내가 떨어져야 할 운명의 거리는 2.3m 밑으로 다가왔다. 0.5초의 순간도 남지 않았다.

아! 이젠 ...

3. 아내의 불안

아내는 그날 아침 괜히 불안했다. 남편이 출근하려고 차를 타는데도 그날따라 마음이 놓이지를 않았다. 지금까지 회사에 출근하는 데 가타부타 말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 “오늘은 집에서 쉬라”고도 했고, “수사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대꾸 한 마디 없이 아이들과 손을 흔들고 떠나가던 남편의 모습이 잊혀지지를 않고 왜 그런지 초조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웃에 있는 고모님 댁을 갔다. TV에서 특보가 나왔다. 크리스마스 특종이겠거니 했는데

「대연각 호텔」 화재 慘事を 회고하며 - ②

“대연각 호텔에서 큰 불이 났다.”는 뉴스와 함께 불길에 잡히지 않아 화마가 호텔 전부를 삼켜버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방시설이나 인명구조설비가 없는데다 유독성 가스 때문에 진화할 수도 없고 구제할 수도 없다면서 질식해 죽는 사람, 불에 타죽는 사람, 뛰어내리다 죽는 사람들이 50명, 100명, 150명으로 자꾸 늘어만 갔다. TV방송은 크리스마스 특종 하나 없이 「대연각 화재사건」만을 집중 보도하고 있었다.

성탄절이라고 고모님이 내 놓은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이렇게 불안하죠? 집에 가볼까요.”

놀다가라고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고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왔다. 아가 출근할 때 일하는 곳을 물었을 때 대담 한마디만 해주었더라면 이렇게 궁궁하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고지식해서” 좀 원망스러웠다. 꼭 무슨 일을 당한 것 같았다.

- 9층에서 떨어지고도

생명을 건진 것은 하늘의 큰 은혜 -

뛰다시피 해서 정신없이 집으로 왔다.

“아차! 왜 왔을까?”

멀찌감치 남편의 자동차가 문 앞에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얼른 가봐야 하는데 가가워지는 것이 오히려 겁이 났다.

“사모님! 사모님! 얼른 차에 타세요.”

운전기사가 외치는 소리에 가슴이 뛰었다.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다급하게 소리 지르며 자동차에 올라탔다.

“안심하세요, 괜찮으세요. 합동병원에 계십니다.”

아무리 다그쳐도 안심하라는 대답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다.

“판 사모님은 다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만 안 오셨어요.”

오늘따라 자동차가 느리다. 갈월동 입구부터 연기가 짙아 있었으며 거리마다 자동차가 길을 메웠다. 서울역 건너편 장형외과 합동병원에는 「대연각 화재사건」의 사상자들로 들끓었다. 중환자실이 꽉차있었다. 안내를 따라 “한만석”이란 명패가 걸려 있는 침대로 달려갔다.

“하필 이이가... 큰일 났네.”

한동안 생각이 막혔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얼굴은 전부 붓대로 감긴, 한쪽 손은 기브스를 하고, 입에는 산소마스크를 물린 남편은 다른 한쪽 팔에 여러 개의 주사물 꽂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 왔어요! 나!”

기브스 하지 않은 한쪽 손을 붙잡고 흐느꼈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얼굴 모양은 알아볼 수가 없었고, 그나마 조금 보이는 부분은 모두 시커멓게 멍이 들은 상태로 미동(微動)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얼마 동안은 침대에 엎드려 정신없이 흐느꼈을까?

“얼마나 걱정이었습니까? 최선을 다해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못 고치면 미국이라도 가게 해 고쳐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병문안 오셨던 많은 어른들도 상태를 보더니 한결같이 “죽지 않고 살아도 장애자”라고 걱정들을 했다. 그래도 아내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싶었다.

아내는 발었다. 진실하고도 간절하게 발었다.

모든 신에게, 삼라만상(森羅萬象)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발었다. 진실으로 애원했다. 웬지 모르게 모든 신은 자기에게만은 좋은 결과를 안겨줄 것이란 믿음이 생기며 아내는 힘이 났다.

다음날 아침에도 의식은 회복되지 않고 헛소리만 계속했다. 시경국장께서 환자를 경찰병원으로 옮기자고 했으나 경

찰병원장이 어차피 결과를 잘 알 수 없는 상태이니 좀 두고 보자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상태에서 척추신경 부분을 다친 나와 이사숙 경사는 고려대 학 우석병원으로 옮겨져 신경계통 전문 치료를 받게 되었다.

四. 2일간의 의식 상실

1. 퇴실아난 의식

“여보, 정신 차려요.”

아내가 아무리 애원해 봐도 소용없이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만을 간간히 할 뿐 무의식상태가 계속되었다.

아내는 밤새도록 침대 밑에서 간병하며 내가 헛소리를 웅얼거릴 때마다 “제 정신이 드는 것인가.”를 확인했으나 번번이 허사였다.

여기 차례 희망과 실망이 교차할 뿐이었다.

1971년 12월 27일 9시경 의식불명상태에서 2일 후

“여기가 어디지? 조선열 어디 갔어? 조선열?”

허를 다쳐 발음이 뚝뚝하지 않으나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분명했다. 정신을 차린 것 같은 말이었고 그 말의 억양도 희망적으로 들려 왔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반가웠다. 기뻐서 가슴이 뛰었다.

“나요, 나! 여기 병원이예요. 정신이 들어요?”

얼굴을 다 싸매서 볼 수는 없으나 평상시 같은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전원기 주입은? 이사숙은?”

이제 겨우 정신 난 사람이 직원들의 안부를 차례로 물었다.

“다들 살아서 치료 받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다 살았나? 대연각 화재는? 지금은?” 생사가 엇갈리는 참혹했던 사고현장에서의 동료들이 염려했던 모양이다.

“숙영이, 기수, 근수는?” 가족들의 안부도 차례로 물었다.

“고생해서 아찌지?” 하면서 잠이 들었다.

아내는 정신이 들은 것을 이제야 확신했다. 안도의 한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뿔었다. 나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천지신명께 “고맙습니다.”라고 소리 내어 답례했다.

2. 전혀 없었던 정신

12월 25일 10시 반경 대연각호텔 9층에서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게 될 낙하점점 2.3m를 남겨 놓고부터 의식을 잃었던 나는 27일 9시경 약 2일만에 정신이 다시 돌아왔다.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은 이 2일간에 나는 손발만 가볍게 움직이고 알아들 수 없는 헛소리를 계속했을 뿐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의식불명 상태였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영원히 살아남아서 제2의 인생으로 재생되어 천당에도 가고 지승에도 간다.”고 한다. 생전에 하나님을 믿으며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도 다시 영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겪은 2일간은 의식이 없었으니 그때부터 영혼(의식)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손·발질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 육체는 살아남아 있었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기 전에 벌써 영혼이 사라졌다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

나는 한가하게 병원침대에 드러누워 한 때 잃었던 정신을 더듬으면서 장기입원의 무료함을 달래 보았다.

五. 퇴원

여러 군데의 상처는 치료가 계속되어 날이 갈수록 아물어갔다. 사실 남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허리는 복대를 하고 몸 왼쪽에 약간의 신경손상으로 걸을 때 땅에 걸려 자주 넘어지고, 수술해서 붙여 놓은 허가 말하기 거북해서 남 앞에 나서기 겁나는 상태였다.

그러던 1972년 8월 4일, 9개월간의 병원생활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다. 사건이 발생했던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아침 가족들과 손을 흔들며 떠났던 집을 거의 1년 만에 돌아오니 감개가 무량했다.

그동안 우리 가족 중 아버지라는 나는 그 높은 9층에서 떨어져서도 남 보기 멀쩡하게 생명을 건져 집에 돌아왔고, 유복자가 될 뻔했던 그 때 배 속의 아기는 새로운 생명으로 귀엽게 태어나 힘차게 자라고 있으니 하늘이 우리 가족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이 행복을 앞으로 멋지게 부러보자고 다짐했다.

〈글〉

- 이어령 前 문화관광부 장관의 "丁亥年 所願詩"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를 읽고 -

높이 飛翔할 날개를 주소서!

최인철 (강원도 경우회장)



현충탑과, 경찰충혼탑을 차례로 참배하며 호국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위기의 조국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충혼탑 참배가 끝나고 시무식을 겸한 단배사에서 이규범 前 경우회장이 이어령 前 문화관광부 장관의 『丁亥年 所願詩』,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라는 시를 소개한 가운데, 조국의 위기를 양팔로 가로 막으려고 몸부림쳐 절규하는 듯한 大敘事詩를 감상하며 가슴 저머오는 침통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이 前 장관은 『우리는 결코 운명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행동하자』고 전제, 『바람개비는 바람이 없어도 들고 달리면 혼자서 돌아 간다』면서 『인간에게는 理想의 날개가 있어 새로운 세계를 꿈꿀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에 세계적인 미래 예측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어령 교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앨빈 토플러는 사회발전은 순서대로 오는 것으로 예측했지만, 한국의 이어령 교수는 『사회발전은 단계별 순차적으로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약적으로 순서를 뛰어 넘을 수도 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했다.

그는 일찍부터 80년대초 우리나라 산업화에 대해 출발은 늦었지만 정보화 단계에 가면 세계에서 우목 선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는가 하면, 「88 서울 올림픽 대회」때는 “벽을 넘어서”라는 구호를 창안하여 東·西 냉전의 이데올로기 붕괴를 예측했다.

이 前 장관의 말대로 세계는 바야흐로 이념의 벽을 넘어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前 장관이 쓴 시를 읽으며 神께서는 이 나라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시고, 창조적 사고를 지닌 이 시대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博學多識하고 寸鐵殺人을 말할 수 있는 학자를 통해 啓示를 내리셨음을 詩的 靈感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詩란 신과 자연, 인간이 자유로이 만나 대화하는 것으로 時空을 초월하여 영혼과 영혼과의 진솔한 속삭임이기 때문이다.

이 시를 통해 이 前 장관은 새의 날개를 所願했다.

싸움닭에 모르는 정치인에게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의 날개를, 삶에 지쳐 힘 없는 서민에게는 웅망스러운 독수리의 날개를, 반기업 풍토로 주눅 들린 기업인에

게는 가볍게 사뿐히 날수 있는 갈매기의 비행을, 품격을 상실한 지식인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소원했다.

각자의 역할에 不充하고 의기소침한 모든 소외계층에 대해 형평을 맞춰 보완해주는 미래예측가다운 처방을 통해 총족적 욕구를 呪術하며 모두가 제 위치에서 침묵하지 말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최선을 다하지는 몸부림이요, 피 맺힌 절규였다.

現 시국을 너무 작나라하게 표현한 진솔한 詩의 언어의 형상화는 민족의 大敘事詩가 파노라마 되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기에 10년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한 농부의 심정이라 표현하고 싶다.

우리는 전란의 소용돌이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으며, 물로 허기진 배고픔을 채워가며 『형아! 엄마야!』를 목 터지게 부르고 피난 행렬에서 낙오되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적자생존의 법칙을 철저히 지켜 산 넘고 강 건너 살아 남았기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던가!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 36년에서 해방된 이래 이념적 갈등을 겪으며, 4.19와 5.16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남들이 앉아 있을때 걷고, 걸을 때 뛰면서 땀흘려 움켜쥐든 두 주먹을 펴지 못하고 이제 땀 흘려 수고한 보람과 결실이 꺾고 풀이 되어 눈 앞에 와 있는데 이대로 추락할 수는 없는 것이다. 理想의 날개를 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안식처 무궁화 꽃 만발한 곳으로 훨훨 날아 가자.

지난 날 조국근대화를 위한 농업화, 산업화, 공업화, 그리고 정보화를 이룩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주체이고, 그 자신은 민족자신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게 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세계가 놀라는 데도 놀라지 않고 있으며, 美·日을 강대국이라 세계가 인정해도 애써 외면하려는 오만이나 넘쳐 흐르다,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 새마을 운동을 세계가 인정하는 데도 애써 폄하하려 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한국의 3대 불가사의라고 의아해 하잖는가!

안보불감증이라는 최면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이나 우민화 세뇌교육에서 벗어나는 것도 남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변화 없이는 이를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기쁨때 웃고 슬픔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 미완된 조국건설에 뜻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 하늘의 찬란한 태양, 이 땅의 아름다운 꽃들, 애국시민의 사랑을 한데 합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말이 없는 저 푸른 소나무 지켜 보는 가운데 촉매의 잔을 들어 세계로! 미래로! 외치며 다시 찬미의 시를 쓰는 그 날까지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 보자.

미국보청기

전·현직 경찰관님께

15년 전통

미국보청기

최고급 디지털보청기를 40% 할인해 드립니다.

부시 미국(전) 대통령, 모로 미국(전) 대통령, 에어컨 미국(전) 대통령

▶ 장음이 정확하고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 15년 전통의 보청기 전문회사입니다.
▶ 아주 작은 소리도 아주 잘 들립니다.
▶ A/B를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 10년 보증서 드림

서울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3가 25번지 (구.서울시경 맞은편)
전화 : (02)752-2580, 752-2589 핸드폰 : 011-229-0055

인천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22-1 푸른 B/D 2F
전화 : (032)469-0033 핸드폰 : 011-229-0055